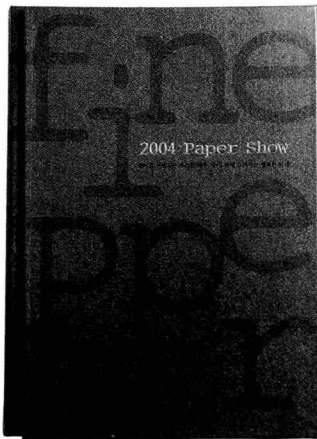


아름다운 종이의 파노라마

종합 종이 샘플북 2004 Paper Show



종이전문기업 화인페이퍼(대표 안상순)가 2003년도에 발간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2003 Paper Show'에 이어 한층 더 풍부한 내용으로 채워진 종이 문화 파노라마 '2004 Paper Show'를 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2004 Paper Show'는 디자이너, 인쇄사, 제지회사, 출판사, 화인종이문화연구소 등의 10여 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

이 1년여 기간 동안 종이 및 인쇄에 대한 연구, 실험 끝에 빛을 보게된 것으로 제작 및 연구비만도 총 3억원이 투입됐다.

화인페이퍼는 1999년 '대한민국 종이 르네상스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기치 아래 설립되어 그동안 출판 및 광고 분야에서 명성과 신뢰를 다져온 대표적인 종이 유통업체이다. 단순한 지류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랜 미디어 기재인 종이를 통한 문화의 확산과 축적을 생각하는 화인페이퍼는 다양한 종이의 특성과 활용 가능성을 연구·개발하는 전문적인 연구시설인 화인종이문화연구소, 종이의 역사와 생산과정 그리고 전통한지를 비롯하여 한국에서 생산·유통되는 각종 종이의 활용 사례를 전시·홍보하는 화인종이 갤러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화인종이문화연구소(센터장 유광열)는 한국 종이상품 시장을 확장시키기 위한 샘플북 출간 작업을 매년

계속하고 있다. 종이를 사용하는 디자이너, 인쇄사, 광고주, 기획자, 편집자 등 종이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최적의 종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연구결과를 'Paper Show'라는 독특한 책으로 선보이고 있다. 2003년에 첫선을 보인 'Paper Show'는 국내 11개 제지사에서 생산되는 186가지의 종이를 총망라해 그 특성 및 제조과정, 쓰임새 등에 맞춰 분류·제본하여 400쪽이 넘는 분량으로 제작한 바 있다. 이는 종이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은 물론, 디자인 포털 업체인 디자인 정글로부터 베스트 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동안 제지사별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자사 종이를 모아 샘플북을 발간한 적은 있으나 'Paper Show'처럼 거의 모든 종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책으로 출간한 것은 국내 제지업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조갑준 기자)